

공동체 소식



연중 제32주일

하느님, 하느님은 고아들과 과부들의 아버지, 떠돌이들의 피난처이시며, 억눌린 이들에게는 의로운 심판관이시니, 하느님 사랑에 의탁하는 가련한 이들을 지켜 주시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유와 빵을 넉넉히 얻게 하시고, 모든 이가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진 것을 형제들과 함께 나누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서한석 시메온, 김수희 아네스 가정
안병환 발렌티노, 안현숙 크리스티나 가정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Values: 41, 340, 156,155, 68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11/14(토) 오전 11:30.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시종 복사, 향 복사. Lists names like 이원준, 차민서, 문호진, 문예나, 정병훈, 김준영, 안광민, 정예찬.

본당 평협회

- 일시 : 11/15(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본당회관.

평신도 주일

- 다음 주일(11/15)은 '연중 제33주일'이며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로서의 신원과 사명을 새롭게 일깨우고 새기며, 각자 자신이 받은 사명을 자신의 자리에서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금주, 차주,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Lists names like 김명은, 최은미, 박재천, 박계숙, 차호섭, 최선윤.

그리스도 왕 대축일(추수 감사미사)

- '연중 제34주일'(11/22)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세상 끝날에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한편 믿는 이들 안에서는 이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추수 감사절' 본 날은 11/26(목)이지만, 이날 대축일과 더불어 추수감사의 의미를 더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애찬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김화년, 안현숙, 정명숙, 조지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기타

- 구역모임에 관련하여 : 구역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구역모임은, 같은 지역에 속한 모든 분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소식을 듣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무적 성격의 모임입니다. 각자의 특별한 지향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본당의 모든 분이 각자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공동체의 친교와 일치를 증대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금 봉사자

Table with 2 columns: 금주,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영성체, 헌금, 교무금. Values: 11/01, 80명, 324불, 1,300불. Includes text: 류기범, 문석찬, 유영원, 이영민, 이우석, 임창주, 조지연 (총 7세대) \*특별헌금: 이우석-500불(지향:주일학교)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성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림 묵상

과부의 동전 두 닢

하느님께 올리는 헌금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는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닢에서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하늘나라에 쌓일 때마다 수호천사는 기쁘게 전달합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 서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7,10-16
< 과부는 밀가루로 작은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다주었다. >



주님께어나 당신을 뵈옵으로 흠족하오리다

- 주님 들으소서 죄 없는 자의 사연을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굶어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시울로 애원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 주소서.
제 걸음은 곳곳이 당신 길만 따르옵기 두 다리는 비틀거림이 없삽나이다 응답이 계시었기 주님 당신을 부르오니 제게 귀를 기울이시와 이 말씀을 들어 주소서.
눈동자 처럼 저를 지켜주시고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이 몸을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오리다 깨어나 당신을 뵈옵으로 흠족하오리다.

제 2 독 서 : 희브리서의 말씀입니다. 9,24-28
<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38-44
<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



### 하느님 앞의 진실함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교 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성인 남자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자와 아이들은 스스로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나 남편을 통해서만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부나 고아는 더 이상 종교, 사회적인 보호 아래에 놓이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화답송에서도 이것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사렙타의 과부와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는 기근이라는 벌을 가져옵니다. 이런 때에 하느님은 엘리야 예언자를 시돈의 사렙타에 있는 과부, 곧 이방인 중의 한 명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만난 과부에게 물과 빵을 청합니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 어르신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 안에서 기근의 이유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하느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의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시대에 이미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언자의 말을 따른 이 여인의 집안에는 오랫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

다. 하느님께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지치고 억눌린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소외받고 가난한 이들 역시 돌보시리라는 것 역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처럼 그것이 빠른 결

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는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우쳐 줍니다. 봉헌은 남들과 비교해서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어떻게 하느님과 공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비록 다른 이들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하느님께 내어놓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값진 봉헌일 것입니다.

과부의 헌금과 비교되는 이야기 또한 복음에서 듣게 됩니다. 인사받기와 윗자리에 앉는 것을 즐기고 어려운 이들의 가산을 빼앗지만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경고는 과부의 헌금과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들이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진실함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음은 그렇지 못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은 가장 나쁜 모습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것이 크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가지지 못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믿고 나의 것을 기꺼이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느님의 뜻일 것입니다.



### 우정과 의리의 사람, 요나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되는 인물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첫 만남부터 다윗의 인품에 마음이 끌려 그를 자신의 목숨처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요나탄은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평생 의리를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때 요나탄은 그 징표로 무엇을 건네 주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8,1-5

사울왕은 백성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뼉을 치고 환성을 울리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자, 사울은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탄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9,1-7

요나탄의 진정한 충고에 귀를 기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가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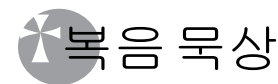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요나탄에게 감사를 전하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다윗도 요나탄의 이러한 마음에 탄복하고, 은혜를 갚으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나탄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왕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요나탄이 전사한 후 다윗은 눈물을 흘렸고, 그의 사랑을 기억하며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사무 1,17-27

다윗에 대한 요나탄의 우정과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임에도, 다윗이 큰 인재임을 알아보고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요나탄은 개인 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했고, 우정을 지킬 줄 아는 매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사울의 말대로 다윗을 처형하는 데 협조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요나탄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정과 의리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혹시...

- ▷ 돕고는 싶은데
- ▷ 현금은 없고, 카드는 안 되나요?
- ▷ 적당히 적당히
- ▷ 노력 없이 사랑하긴 참 쉬워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마르 12,43)